

2019-2020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 (Vol.18)

e-날씨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 (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대전지방기상청



Thank you for your affections and supports you have shown and contributed in the year of 2019.
I do wish we all the very best for 2020.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대전지방기상청

(34142) 383,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2019-2020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Vol.18)

INTRO

04 / 청장님 인사말

WEATHER

06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1-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08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2- 지구온난화의 도화선, 대형산불

REPORT

10 / 2019년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12 / 2020년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15 / 2020년 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18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SERVICE

20 / 기상청 전자민원

21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22 / 대전지방기상청 체험학습

23 / 2020년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일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0년 2월 27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훈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준휘(기획운영과), 안현진(예보과), 이영미(관측과), 김민희(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경수(관측과), 김호(기후서비스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종숙(예보과), 배철호(예보과), 백은희(예보과), 서은진(예보과), 옥순기(기후서비스과), 이상걸(예보과), 임영목(관측과), 장민준(예보과), 조현지(기획운영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 대전 · 세종 · 충남 시민 중심의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대전지방기상청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기상청장 박훈입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해는 육십갑자 중 37번째로 ‘하얀 쥐의 해’입니다.

흰 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며 지혜롭고 만물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환경에서든 판단이 빠르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만약 난처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뜻 깊은 해에 첨단 과학의 도시, 문화도시 대전에서 대전지방기상청을 새로이 맡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상 · 기후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및 레저산업의 발달로 국민들의 날씨에 대한 관심과 기상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 · 세종 · 충남의 안전과 우리 시민들의 안심을 위해 시민 중심의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2020년 정책목표를 「빈틈없는 날씨서비스로 지역현안 해결,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상상황을 더욱 자주 알리고, 집중호우 · 대설 · 해무와 같은 위험기상이 발생하는 경우 방재 유관기관과의 빈틈없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방재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상정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기상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산시켜 기상정보가 시민생활 편의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1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기후변화,
기상이변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기상이변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요즘,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대설과 같은 위험기상 앞에 '대형'이라는 말을 넘어 '슈퍼'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강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자연재난으로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번번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유난히 많은 태풍이 발생한 올 여름을 보내며 다가오는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눈은 또 얼마나 내릴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지난 11월 12일 충남 보령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민·관의 9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지역 대설피해 저감을 위한 포럼'을 가지게 되었다. 기상청과 충남도청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정책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자율방재단이 함께 모여 대설 원인과 재해특성은 물론 대설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까지 논의한 뜻 깊은 자리였다.

재해기상센터와 충남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설피해는 주로 농업분야에서 많이 나타났고, 30~40cm 이상의 폭설이 올 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설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였으나 대설피해는 2000년도에 들어서며 기습폭설을 자주 겪은 충남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기습폭설로 대전에 49.5cm의 적설을 기록한 2004년 3월 5일에는 3526억원의 재산피해와 3734세대의 이재민이 발생 했었다. 이는 평소 대응하던 수준을 넘는 기습폭설을 대응할 방안이 정부와 국민 모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제는 빈도는 낮으나 피해가 큰 기록적인 폭설을 대비해야 함에 모두 목소리를 모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모든 대설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마련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빈도가 적은 폭설을 대비하기 위한 막대한 제설장비를 정부가 모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다. 그보다 지역의 재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기상청도
대설 영향예보를
준비 중에 있다

지역의 모든 기관에서 대설재해를 나의 일로 여기고 보다 협력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본 이번 포럼은 대설재해 대응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방재단'과 같은 민간의 협조로 도민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중장비를 폭설이 발생할 때 빠르게 동원할 수 있다면 대설재해를 더 능동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기상청도 대설 예보와 특보를 넘어 지역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설 영향예보를 준비 중에 있다. 기습폭설에 대한 예보기술력을 높이고 충남도와 함께 기록적인 폭설을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이제는 정부차원의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민간 자율방재단과의 협동체계 구축과 같은 자율적인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면 예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폭설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2 지구온난화의 도화선, 대형산불

2019년은 지구온난화로
기상기록이 많이
나타났고 변동이 큰 해

2020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신년 맞이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반면 호주는 화마로 신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화재는 지금까지 무려 1천만 헥타르(10만km²)의 면적을 태운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서울 면적의 100배가 넘는 수치다.

화마가 휩쓸고 간 상처는 참혹했다. 산불로 숨진 인명이 28명에 달하는 가운데 코알라, 캥거루, 두나트 등 호주 서식 동물도 무려 12억5,000여 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코알라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는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호주 산불에 의해 발생한 연기가 최고 17km 상공까지 치솟아 이미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4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고 이는 호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온실가스를 정화할 산림이 거의 타서 없어졌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즉, 산업 활동에 따른 온난화, 고온건조해지는 기후, 잦아지는 산불 사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 다시 지구온난화 문제로 악순환 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줄 매개체인 산림이 사라진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최근 국내 연구팀은 지난해 발생한 시베리아 대형 산불이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북극진동(북반구에 존재하는 추운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또는 수십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완화시켜 겨울철 시베리아 지역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온도를 크게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눈이 빨리 녹아 고온건조한 기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면마저 건조해져 산불을 촉발시켰다는 이야기다. 특히 북극 영토 주변에 자리한 영구동토층(지층온도가 연중 0℃이하인 부분)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더욱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베리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캐나다, 그린란드 등 북극을 둘러싼 모든 지역이 기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난 2019년은 지구온난화로 기상 기록이 많이 나타났고 변동이 큰 해였다.
전세계 평균기온이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해였으며(2016 대비 +0.04℃,

2월 1일~5월 15일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평년 대비 +0.6℃), 우리나라도 1973년 관측 이래 2016년(13.6℃)에 이어서 연 평균기온이 13.5℃(평년 대비 +1.0℃)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연평균 누적 강수량은 1171.8mm로 평년값(1207.6~1446.0mm)보다 줄었으며, 월별 강수량 변화폭이 크게 나타난 해였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단순 환경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인류, 더 나아가 지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산불, 그리고 이상 고온은 머지않은 미래에 부딪혀야 할 생존 문제에 대한 경고다.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지구온난화와 산불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키지 않으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서운 화마로부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월1일부터 5월15일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건조한 날에는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019년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19년 하반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12.6.)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상자료 품질관리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기상자료 개방포털 소개 및 활용방법에 대해 배우고, 국가기후 데이터 오류 사례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상자료 품질관리 전문가와의 지식 공유를 통해 관측업무 담당 직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홍보 리플릿 제작(12.19.)

대전지방기상청은 2019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인 「충남 농업·관광 기상융합정보 현장적용 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수록 내용은 농업 분야(천안 팔 재배를 위한 기상정보 서비스)와 관광 분야(도보여행 길 관광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업소개와 개발과정, 제공되는 정보 등이며 앞으로 워크숍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와 교육 등을 통해 배부하여 기상기후서비스의 홍보와 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 기상특성 보고서 발간(12.30.)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의 분리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실시한 연구결과를 책자로 제작하여 해양관계기관 및 연구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상특보구역의 분리가 추진된다면 해상민원의 불편이 해소되고 보다 효율적인 풍랑특보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방기상청 우수 예보관 선정(12.31.)

대전지방기상청은 예보관 사기증진 및 예보 정확도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2019년 우수 예보관을 선정하였다. 일 8회 발표하는 충남지역 동네예보의 강수량과 강수유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므로 예보관의 지역기상 전문성이 강화되고 정확도 높은 동네예보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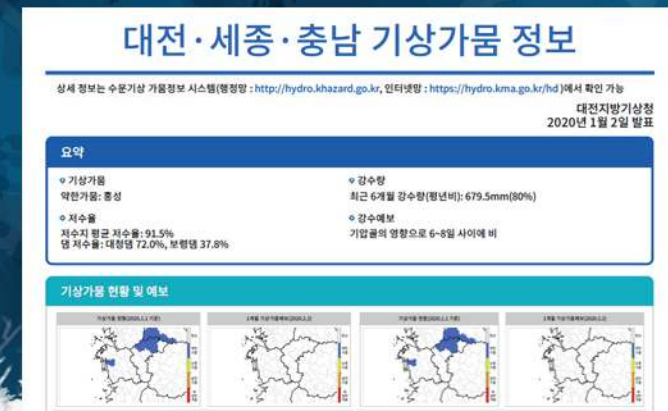
특보 에센스 제작(12.24.)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예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특보 에센스'를 발간하였다. 호우, 대설, 강풍, 한파, 풍랑에 대한 위험기상 메커니즘과 대표 사례 연구를 통해 예보관의 위험기상 대처 능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세종·충남 장기예보 기술노트」 발간(12.27.)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장기예보의 분석기술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세종·충남 장기예보 기술노트를 발간하였다. 이번 발간한 기술노트에는 장기예보의 정의와 생산과정부터 기후감시, 원격상관, 계절별·월별 장기예보 가이던스, 사례분석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아 지역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세종·충남 기상가뭄 정보 서비스 개선(12.31.)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가뭄 정보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도모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가뭄 현황 및 예보, 지역별 강수량 현황, 기상전망, 가뭄 예·경보 자료, 댐 저수율 및 저수지 저수율 현황이 집약된 '대전·세종·충남 기상가뭄 정보 서비스'를 개선하여 2020년부터 시행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020년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설연휴 연안여행객선 특별수송 대책회의 참석(1.16.)

대전지방기상청은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1.~7.) 중 연안여행객선 수송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한 특별수송 대책회의에 참여하였다.
해양수산부와 대안지방국토관리청 등 해양관련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이동은 물론 위험기상 발생 시 신속한 방재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지방기상청-세종시 스마트기상서비스 실무회의 개최(1.29.)

대전지방기상청은 세종시와 함께 기상기후서비스 소개 및 세종 스마트시티 특화 안개 감시·예측 기술개발,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구축사업에 필요한 자료 공유 등 지속적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0년 1월~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실시간 해상모니터링 감시를 위한 천수만 명예 해양감시원 위촉 (1.16.)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장비 부족으로 실시간 현장상황 파악이 어려웠던 천수만 평수구역의 해상감시 강화를 위해 '천수만 명예 해양감시원'을 위촉하였다. 당암포 선박 입출입 통제를 관할하는 현지 소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상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예보관의 특보 의사결정을 지원하므로 예·특보 정확도 향상은 물론 해상민원 최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도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 관계자 간담회 개최 (1.31.)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면바다 북격렬비도에서 무인으로 운영 중인 서해종합 기상관측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자 간담회를 1월 31일 개최하였다. 관련부서로 관측장비를 운영 중인 관측정책과, 위성운영과, 지진정보기술팀과 대항역무를 수행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2019년 서해기지 관측장비·시설에 대한 주요 보수·개선 사항과 2020년 관측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험기상 대설 대응을 위한 영상회의 브리핑 실시(2.4.)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압골에 의한 눈이 충남지방에 예상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기상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였다. 강설이 시작될 시간과 피크 시간은 물론, 국지적으로 대설을 대비해야 할 시·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실시하므로 위험기상 대응 및 지자체 방재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위험기상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방재소통강화로 충남지역 재해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제1회 명사 초청특강 운영(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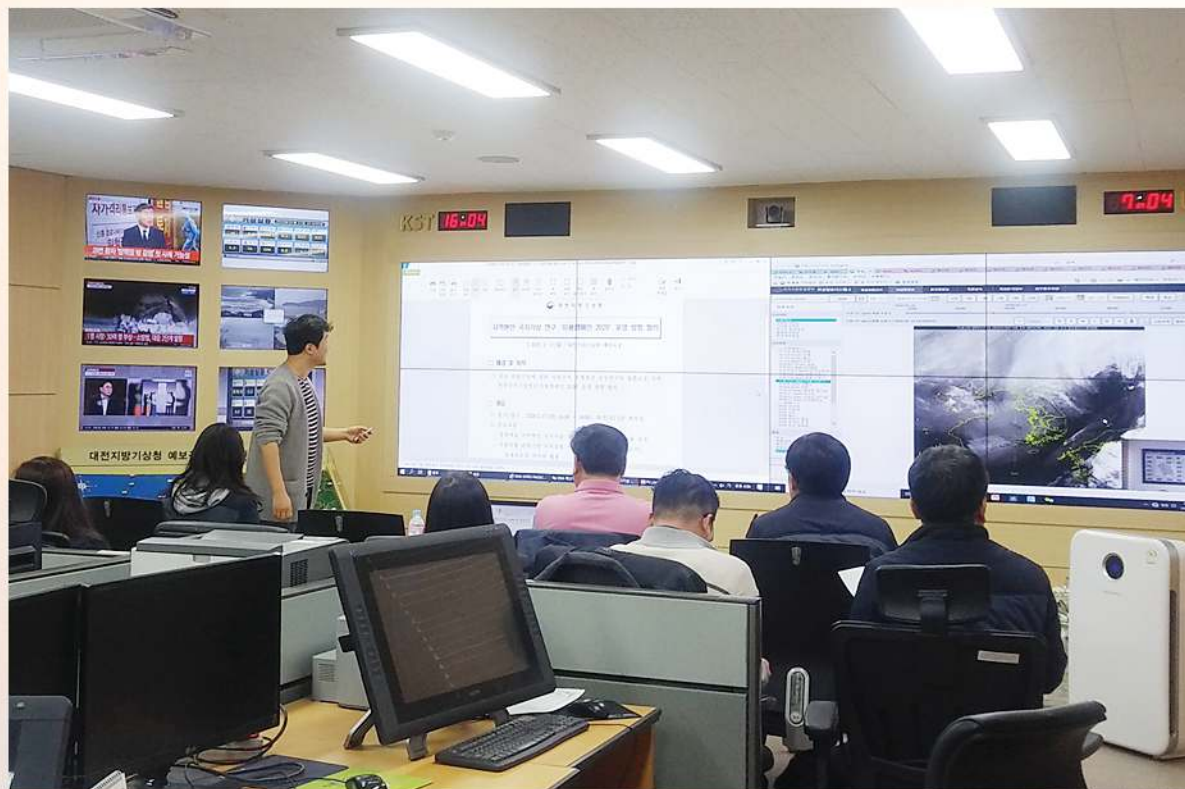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들의 원활한 의사전달 능력 및 소통력 강화를 위해 제1회 명사특강(2월 자체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청사 휴마온센터 한영숙 센터장을 초빙하여 "마음을 흔치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기원과 자갈의 언어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하게 발전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돌발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체계 구축 (2.4.)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됨에 따라, '도심침수 대응 시민안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지방기상청과 대전시 간의 협의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금강홍수통제소, 대전세종연구원이 협업으로 함께 동참한다. 각 기관별 대응기술을 융합한 공동협력방안 마련으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방재지원을 실시하므로 지역재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치모델 전문가 초청 세미나(2.17.)

대전지방기상청은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의 일환인 지역 현안 국지기상 연구를 위해 공주대 김주완교수를 초청해 수치모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했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관측기반 수치실험 연구인 차령캠페인 2020을 위해 분석기술을 연마하고, 수치모델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예보관의 지역기상 전문성이 강화되어 정확도 높은 호우 메커니즘 분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2.21.)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도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시설 운영 계획 등 시설 운영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지 출입 및 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운영방안을 협의하였다. 서해기지 시설 사용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소통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해상에 위치한 서해기지 입출도에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세종·충남 관측기록

2019
12
December

12. 10. 12월 상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홍성: 4위 13.1℃
12. 16. 12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홍성: 3위 14.5℃
12. 16. 12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서산: 3위 15.6℃, 부여: 3위 15.3℃, 보령: 5위 16.0℃

2020
1
January

1. 6. 1월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홍성: 2위 12.6mm
1. 7. 1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대전: 4위 14.2℃, 금산: 2위 16.4℃, 보령: 4위 15.1℃, 부여: 4위 14.2℃
천안: 5위 13.7℃
- 1월 상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홍성: 1위 15.6℃, 보령: 1위 14.4℃, 금산: 1위 16.4℃, 서산: 2위 13.1℃
부여: 2위 14.2℃, 대전: 3위 14.2℃, 천안: 3위 13.7℃
- 1월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대전: 1위 57.0mm, 천안: 1위 44.0mm, 홍성: 1위 56.7mm, 금산: 1위 44.5mm
부여: 1위 55.5mm, 서산: 2위 42.2mm, 보령 2위: 34.7mm

2020

1
January

1. 7. 1월 상순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대전: 1위 57.0mm, 천안: 1위 44.0mm, 홍성: 1위 56.7mm
금산: 1위 44.5mm, 부여: 1위 55.5mm, 서산: 2위 42.2mm
보령 2위: 34.7mm
1. 14. 1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서산: 1위 17.7℃
1. 16. 1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대전: 5위 14.2℃
1. 19. 1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홍성: 4위 7.9℃
1. 23. 1월 하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대전: 3위 13.0℃, 부여: 3위 13.2℃

2020

2
February

2. 4. 매화 발아(작년대비 8일 빠름, 평년대비 45일 빠름)
2. 11. 2월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홍성: 2위 15.1℃
2. 25. 2월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대전: 1위 55.1mm, 보령: 1위 41.5mm, 부여: 1위 57.7mm, 홍성: 1위 50.3mm
천안: 2위 36.0mm, 금산: 2위 50.2mm, 3위: 서산 40.8mm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회원가입(정부통합 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2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패스ID(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
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 등 신청용도를 선택
합니다.

6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완료

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
하여 전자증명서(PDF)를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0. 2.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세천(643), 문화(642), 장동(648), 세종전의(629), 세종연서(611), 세종금남(496), 세종고운(494)
계룡산(659), 계룡(636), 논산(615), 연무(644), 양화(635), 서천(614), 춘장대(646)
홍성죽도(610), 대천항(657), 서부(645), 홍북(608), 원효봉(694), 태안(627), 외연도(669)
정산(691), 호도(578), 근흥(607), 만리포(658), 웅도(667), 신평(637), 안도(666), 삽시도(609)
대산(606), 당진(616), 청양(618), 송악(493), 아산(634), 예산(628), 성거(617),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북격렬비도(229)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신청가능 대전지방기상청 체험학습

체험학습 소개

- 대전지방기상청은 대덕연구단지에 자리잡고 있어 청사 주변에는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등 관람시설이 있음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 중학교 학생 수준의 체험학습 가능
- 기상홍보관은 본관 3층에 위치



기상업무전시실

일기예보의 생산과정 및 기상서비스, 기후변화, 기상재해에 대한 안내



기상역사전시실

기상관측 역사 및 대전지방기상청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



날씨방송체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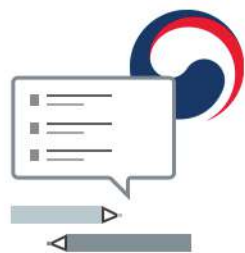
직접 기상캐스터가 되어 날씨방송체험을 해 볼 수 있음



기상장비전시실

날씨를 관측하는 다양한 관측 장비를 실물로 비치

체험학습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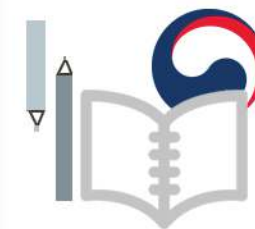


-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담당 주무관 또는 기상해설사에게 전화 신청
 - 담당 주무관 : 070-7850-4164
 - 기상 해설사 : 070-7850-4150

2020년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일정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제목	대상
3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학생
4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브런치 기후카페	중학생 학부모
5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브런치 기후카페	중학생 학부모
6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브런치 기후카페	중학생 학부모
7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브런치 기후카페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주니어닥터 연계)	중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8월	브런치 기후카페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주니어닥터 연계)	학부모 초등학생
9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브런치 기후카페	중학생 학부모
10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브런치 기후카페	중학생 학부모
11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학생
12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학생
연중	진입특강 「Pick your dream Up!」 대전지방기상청 견학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전 국민



* 문의: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070-7850-4164)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